

21. 낙랑과 호동 이야기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夏 ¹ 四 ² 月 ³ 에王 ⁴ 子 ⁵ 好童 ⁶ 이遊 ⁹ 於 ⁸ 沃沮 ⁷ 한대, 하 사 월 왕 자 호 동 유 어 옥 저	夏 여름 四月 넷달 王子 임금 아들 遊 놀다 於 어조사
풀이	• 好童: 고구려의 왕자. 대무신왕의 아들 • 於: ~에 • 沃沮: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하나 ▶ 여름 4월에 왕자 호동이 옥저에 놀러 갔는데,	
문장	樂浪王崔理가出行하여因見之問曰: 낙 랑 왕 최 리 출 행 인 견 지 문 왈	樂 즐겁다 浪 물결 出行 나가다 行 가다 因 인하다 見 보다 之 그 問 묻다 曰 가로되
풀이	• 崔理: 낙랑 공주의 아버지 • 出行: 나가서 다님, 먼 길을 떠남. • 因: ~로 인하여, ~한 연유로 • 之: 대명사, 그(그 사람)	
문장	觀君顏色하니非常人이로다. 관 군 안 색 비 상 인	觀 보다 君 그대 顔 얼굴 色 빛 非 아니다 常 평범하다 人 사람
풀이	• 君: 그대(2인칭 대명사) • 常人: 평범한 사람. 일반인	
문장	豈非北國神王之子乎아? 기 비 북 국 신 왕 지 자 호	豈 어찌 非 아니다 北 북녘 國 나라 神 귀신 王 임금 之 ~의 子 아들 乎 어조사
풀이	• 豈非~乎: 어찌 ~아니겠는가? • 北國: 고구려 • 神王: 대무신왕	

문장	遂 同 歸 _{하여} 以 女 妻 之 _{하다} . 수 동 귀 이 녀 처 지	遂 마침내 同 함께 歸 돌아가다 以 ~로써 女 딸 妻 시집보내다 之 그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以: ~로써 女: 딸 妻: 아내, <u>시집보내다</u> 之: 그, 그사람 	
문장	後 _에 好童 _{호동} 還國 _{환국} 하여 潛遣人 _{잠견인} 하여 告崔氏女曰: 후 호 동 환 국 잠 견 인 고 최 씨 녀 왈	後 뒤 還 돌아오다 潛 잠기다. 몰래 遣 보내다 人 사람 告 알리다 崔 높다. 성씨 氏 성씨 曰 말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好童: 고구려의 왕자. 대무신왕의 아들 潛: 잠기다, 몰래 女: 여자, 딸 	
문장	若能入而國武庫 _{하여} 割破鼓角 _{이면} 약 능 입 이 국 무 고 할 파 고 각	若 같다. 만약 能 능하다 入 들어가다 而 말 있다. 너 武 무인, 무기 庫 곳집 割 베다 破 깨다 鼓 북 角 뿔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若~則: 만약 ~한다면 能: ~할 수 있다. 而: 너, 그대(2인칭 대명사) 	
문장	則我以禮迎 _{이요} , 不然 _{이면} 則否 _라 . 즉 아 이 례 영 불 연 즉 부	則 곧, ~하면 以 ~로써 禮 예절 迎 맞이하다 不 아니다 然 그러하다 否 아니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以: ~로써 不然: 그렇지 않다 否: 아니다. 	

※ 호동 왕자와 낙랑 공조의 이야기를 읽고 고구려 건국 초기의 역사적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姑婦 고부 •		• 아주 간악한 사람.
姿態 자태 •		•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妄動 망동 •		• 아무 분별없이 망령되이 행동함. 또는 그 행동.
大姦 대간 •		• 어떤 모습이나 모양. 주로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를 말함.
王妃 왕비 •		• 임금의 아내.
娘子 낭자 •		• 출신 학교에 따라 연결된 인연.
學緣 학연 •		• 예전에 처녀를 높여 이르던 말.
孰是孰非 숙시숙비 •		• 누가 옳고 누가 그름. 또는 그것을 가림.

〔나〕

表裏不同 표리부동 •		• 명예스럽지 못함.
不名譽 불명예 •		•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
拒否 거부 •		•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否票 부표 •		•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疫病 역병 •		• 회의에서 가부를 표결할 때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표.
占據 점거 •		• 대체로 급성이며 전신(全身) 증상을 나타내어 집단적으로 생기는 전염병.

〔다〕

檀君 단군 •		• 우리 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태초의 임금.
神話 신화 •		•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事績), 민족의 태고 때의 역사나 설화 등 신성한 이야기.
高句麗 고구려 •		• 우리나라 고대의 삼국 중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세운 나라.
朱蒙 주몽 •		• 고구려의 시조 ‘동명 성왕’의 이름.
婚姻 혼인 •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誕生 탄생 •		• 사람이 태어남.
超越的 초월적 •		•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는 그런 것.
擁立 옹립 •		• 임금으로 받들어 모심.
罪囚 죄수 •		• 죄를 지어 교도소(감옥)에 수감된 사람.
政治 정치 •		• 나라를 다스리는 일.
祭儀 제의 •		• 제사의 의식.
竝行 병행 •		•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
推測 추측 •		•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림.
危殆 위태 •		• 어떤 형세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함.

【꼭 알아 둬시다】

■ 한문 지식 정리

- 명사의 동사화: 명사는 동사처럼 쓰여 문장에서 그 자체로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妻 罔아내 罔시집보내다
- 인칭대명사: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1인칭: 我(나 아), 吾(나 오)
 - 2인칭: 而(너 이), 汝(너 여), 君(그대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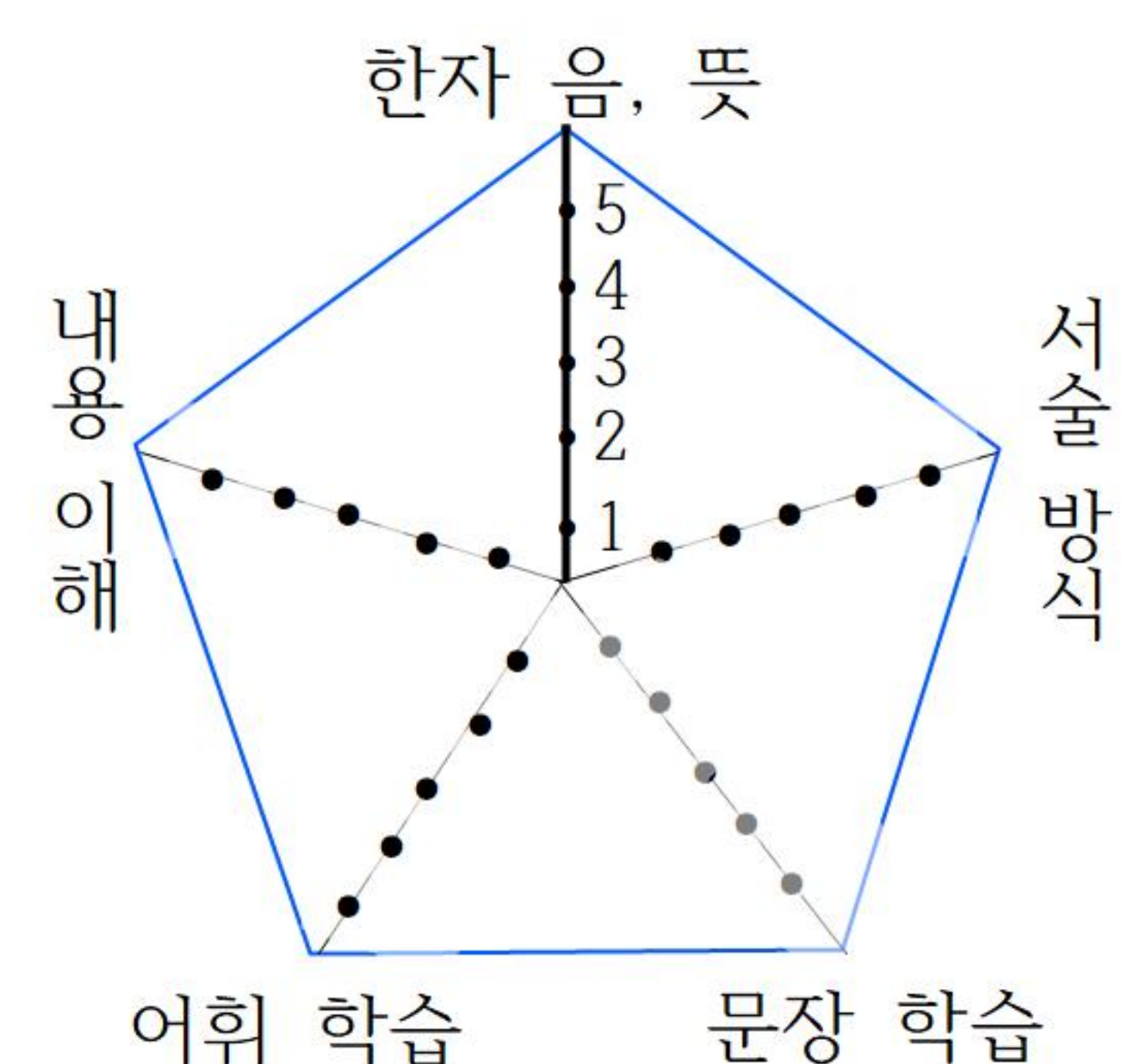
■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김부식이 뚜렷한 역사관을 가지고 기술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1세기경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의 역사와 경전에 함몰되어 있을 때 김부식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삼국사기표(進三國史記表)」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학사, 대부분이 중국의 오경(五經)·제자(諸子)의 책과 중국의 역사서에 대하여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는 망연무지(茫然無知)하다.” 이는 고려의 지식인들이 송나라 학문뿐만 아니라, 자국의 학문과 역사에 대하여도 걸맞게 알아야 한다는 문화적 균형 감각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국가의 통치행위에 대한 군주와 신하의 올바른 역할을 중시하였고, 삼국의 국가가 생겨 발전해오다가 멸망에 이른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었다.

■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뒷이야기

낙랑공주는 칼을 가지고 병기고에 들어가 고각을 부숴 버린 후 이를 호동에게 알렸다. 그러자 호동은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하였고, 낙랑왕은 적병이 성 아래 이른 후에야 고각이 파괴된 것을 알고는 딸을 죽이고 항복하였다. 대무신왕의 차비(次妃)는 얼굴이 아름다워 왕이 매우 사랑하였는데, 호동이 바로 차비의 소생이었다. 원비(元妃)는 왕이 적통을 버리고 호동을 태자로 삼을까 염려하여 왕에게 호동이 자신을 예로써 대접하지 않으니 음행을 하려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일러 바쳤다. 호동은 억울한 사정을 해명하지 않은 채 칼에 얹어져 자살하고 말았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2. 굳게 마음을 먹고

이름: _____ ()학년 ()반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본문 학습】

문장	公 ^이 少 ^時 ^에 卓 ^熒 不 ^羈 ^라 . 공 소 시 락 형 불 기	公 少 時 卓 熒 不 羈 공 적다 때 높다 빛나다 아니 얽매이다
풀이	• 卓熒: 두드러지게 뛰어남. • 不羈: 도덕이나 사회 관습 등에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음. ▶ 공(양연)이 젊은 시절에 뛰어난 재주로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문장	至 ³ 四 ¹ 十 ² 始 ⁴ 學 ⁵ ^{할새} 發 ² 奮 ¹ 決 ⁴ 心 ³ ^{하여} 握 ^左 手 ^{하고} , 지 사 십 시 학 발 분 결 심 악 좌 수	至 始 發 奮 決 握 이르다 처음, 시작 퍼다 떨치다 맺다 쥐다
풀이	• 至: ~에 이르러 • 決心: 마음을 굳게 정함. ▶	
문장	不 ^爲 文 ^章 ^{하면} 誓 ^不 開 ^手 ^{하리라하다} . 불 위 문 장 서 불 개 수	爲 文 章 誓 不 開 짓다 글월 문장 맹세하다 아니 열다
문장	讀 ^書 于 ^北 漢 ^中 興 ^寺 ^{하니} 독 서 우 북 한 중 흥 사	讀 書 于 北 漢 興 寺 읽다 책 어조사 북쪽 한수 일으키다 절
풀이	• 于: ~에서 ▶	
문장	歲 ^餘 ^에 文 ^理 貫 ^通 ^{하고} 詩 ^格 清 ^高 ^{러라} . 세 여 문 리 관 통 시 격 청 고	歲 餘 理 貫 通 格 清 해 남다 다스리다 꿰다 통하다 격식 맑다
풀이	• 歲餘: 1년 남짓한 동안 • 文理: 글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 • 詩格: 시의 격식이나 품격. • 清高: 맑고 고결함. ▶	

문장	寄詩於其婦翁曰：“書榻燈光暗하고, 硯池水色清이라. 기 시 어 부 웅 왈 서 탁 등 광 암 연 지 수 색 청	寄 부치다 婦 부인 翁 늙은이 榻 걸상 燈 등불 暗 어둡다 硯 벼루 池 연못 色 빛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婦翁: 사위에 대한 장인의 자칭(自稱) 於: ~에게 	
문장	管城吾所願이요, 兼望楮先生하노이다.” 관 성 오 소 원 겸 망 저 선 생	管 붓 城 성 吾 나 願 원하다 兼 겸하다 望 바라다 楮 종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管城: 관성자(管城子)의 준말로 붓을 의인화한 말이다. 所: ~ 하는 것 楮先生: 종이 	
문장	蓋請四友之意也라. 개 청 사 우 지 의 야	蓋 모두 請 청하다 友 벗 意 뜻 也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蓋: 아마도 之: ~의 文房四友: 붓, 먹, 벼루, 종이 	
문장	婦翁이 佳其晚學速成하여 戲而答之曰: 부 웅 가 기 만 학 속 성 희 이 답 지 왈	佳 아름답다 其 그 晚 늦다 速 빠르다 戲 희롱하다 答 답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婦翁: 사위에 대한 장인의 자칭(自稱) 戲: 놀리다. 而: 그래서 	
문장	“梁忠義四十에 讀書山堂하니 嗚呼! 晚矣라.” 하다. 양 충 의 사 십 독 서 산 당 오 호 만 의	梁 들보, 성씨 忠 충성 義 옳다 堂 집 嗚 탄식소리 呼 부르다 晚 늦다 矣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山堂: 산신당의 준말 梁: 양연(梁淵) 	

〔나〕

交渉 교섭 •		• 최선책에 다음가는 방책.
涉獵 섭렵 •		• 편안하고 한가로움.
官僚 관료 •		• 소리를 높여 슬피 울.
官府 관부 •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
不惑 불혹 •		• 여러 차례.
迷惑 미혹 •		•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함.
屢次 누차 •		• 마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
次善策 차선책 •		• 정부나 관청.
侮辱 모욕 •		• 허리와 엉덩이 부위가 아픈 증상.
慰安 위안 •		•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安逸 안일 •		•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함을 이르는 말.
腰痛 요통 •		• 깔보고 욕되게 함.
痛哭 통곡 •		•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들의 집단.

〔다〕

障壁 장벽 •		• 담과 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牆壁 장벽 •		• 가리어 막은 벽.
乾燥 건조 •		• 격식을 갖춘 밥상
建造 건조 •		•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들.
班常 반상 •		• 양반과 상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飯床 반상 •		• 말라서 습기가 없음.
著名 저명 •		•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冥想 명상 •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名相 명상 •		• 정사에 뛰어나서 이름난 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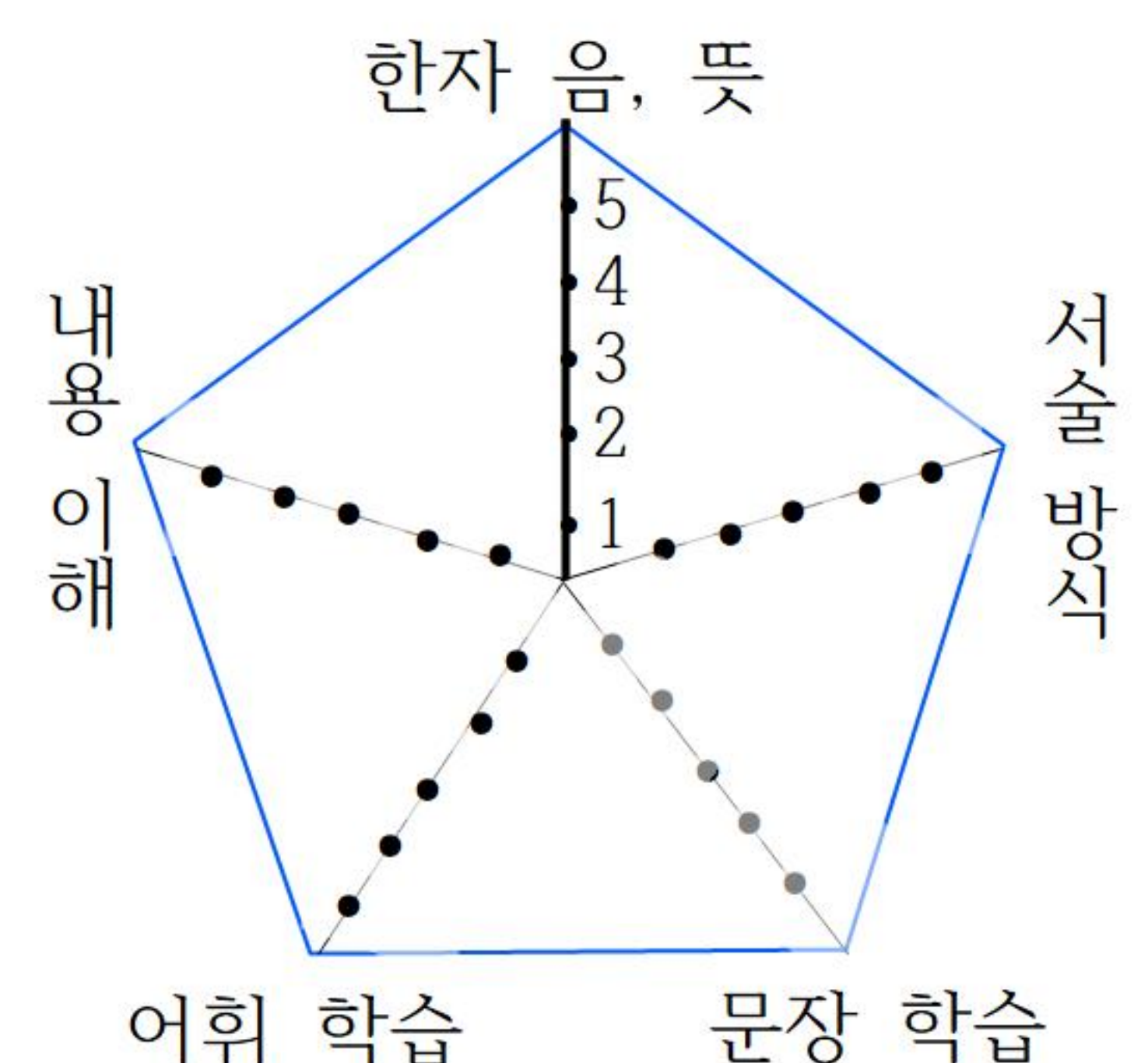
※ 위 단어들을 활용하여 본문의 내용의 관한 감상문을 간단히 써 봅시다.

【꼭 알아 둡시다】

■ 문장의 유형_ 감탄문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嗚呼!: 오호!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3. 자식에게 보낸 편지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寄 ³ 二 ¹ 兒 ² 기 이 아	寄 부치다 二 둘 兒 아이
풀이	• 二兒: 정약용의 두 아들 정학연과 정학유 ▶ 두 아이에게 부치다	
문장	今汝既不能赴科 ^하 니 卽科文已忘憂矣 ^라 . 금 여 기 불 능 부 과 즉 과 문 이 망 우 의	既 이미 能 능하다 赴 다다르다 已 이미 忘 잊다 憂 근심 矣 어조사
풀이	• 汝:너(2인칭대명사) • 不能: ~할 수 없다. • 科: 과거시험 • 卽: 곧 • 科文: 과거 시험에서 보이던 여러 가지 문체의 글 • 矣: ~ 이다. ▶	
문장	吾意汝已爲進士矣 ^이 요, 已爲及第矣 ^이 라. 오 의 여 이 위 진 사 의 이 위 급 제 의	吾 나 意 뜻 爲 되다 進 나아가다 士 선비 及 미치다 第 차례, 과거
풀이	• 爲: ~이 되다. ~을 여기다. ▶	
문장	識字而無科舉之累 ^이 니 식 자 이 무 과 거 지 루	識 알다 字 글자 而 말 잇다 無 없다 舉 들다 之 어조사 累 뭉다
풀이	• 識字: 글자를 알다, 지식을 갖추다, 글을 알다, 지식과 판단력이 있다. • 累: 얹매이다. ▶	
문장	與爲進士及第者 ^로 奚擇焉 ^이 리오. 여 위 진 사 급 제 자 해 택 언	與 더불다 進 나아가다 奚 어찌 擇 가리다 焉 어조사
풀이	• 爲: 되다 • 奚~焉: 어찌 ~하겠느냐? • ~者: ~ 하는 사람 ▶	

문장	汝眞得讀書時矣 ^라 . 여 진 득 독 서 시 의	汝 眞 得 讀 書 矣 너 참 할 수 있다. 읽다 책 어조사
풀이	• 時: ~할 때 ▶	
문장	寄兩兒 기 양 아	寄 兩 兒 부치다 둘 아이
풀이	• 兩兒: 정약용의 두 아들 정학연과 정학유 ▶	
문장	我所不施 ^로 以望人之先施 ^는 아 소 불 시 이 망 인 지 선 시	我 施 望 之 先 나 베풀다 바라다 ~하는(한) 먼저
풀이	• 所: ~하는 것 • 以: 그리고 ▶	
문장	是汝傲根猶未除也 ^라 시 여 오 근 유 미 제 야	是 傲 根 猶 未 除 이 거만하다 뿌리 오히려 아니다 덜다
풀이	• 是: 이것 • 猶: 아직도 ▶	
문장	茲後留心 ^{하여} 於平居無事之日 ^에 恭睦愼忠 ^{하여} 자 후 류 심 어 평 거 무 사 지 일 공 목 신 충	茲 後 留 居 睦 愼 이 뒤 머무르다 머무르다 화목하다 삼가다
풀이	• 茲後: 이후로 • 留心: 마음에 두다, 유념하다 • 平居: 평소 • 恭: 공손하다, 睦: 화목하다, 愼: 삼가다, 忠: 충실하다 ▶	
문장	務得諸家之歡心 ^{하고} 무 득 제 가 지 환 심	務 得 諸 家 歡 힘쓰다 얻다 여러 집 기쁘다
풀이	• 諸: 여러 • 歡心: 호감을 가지게 하다 ▶	
문장	而心中絕不留望報底苗脈 ^{하라} . 이 심 중 절 불 류 망 보 저 묘 맥	留 望 報 苗 脈 머무르다 바라다 갚다 싹 맥
풀이	• 絕: 절대로 • 底: ~하는, ~한(어조사) • 苗脈: 일의 실마리. 곧, 일이 일어날 단서(端緒) ▶	

※ 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정약용의 편지글을 통해 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길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取捨選擇 취사선택 •		• 여럿 가운데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림.
拂入 불입 •		• 붓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르는 말.
揮毫 휘호 •		•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음.
絶叫 절규 •		• 인조견.
成績 성적 •		• 과전법에 따라 관원에게 나누어 주던 토지.
人絹 인견 •		• 돈을 내는 것.
科田 과전 •		• 포아풀과 식물, 특히 벼 품종에 많이 생기는 병의 하나.
穀粟 곡속 •		• 곡물.
稻熱病 도열병 •		• 하여 온 일의 결과로 얻은 실적.

〔나〕

贈與 증여 •		•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
醉興 취흥 •		•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輿論 여론 •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調查 조사 •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하던 시험.
科擧 과거 •		• 선(禪)에 관한 학문.
錯覺 착각 •		•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
禪學 선학 •		•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

〔다〕


把파 •		• 盜도 •		•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
竊절 •		• 付부 •		• 짝 움켜져 쥐고 있음.
納납 •		• 持지 •		•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냄.
連연 •		• 正정 •		• 기품이 높고 바름.
雅아 •		• 絡락 •		•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림.

〔라〕

宣揚 선양 •	•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
激勵 격려 •	•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
冒險 모험 •	• 법령이나 지폐, 증서 따위를 마구 공포하거나 발행함.
苦痛 고통 •	• 잘못되거나 부족하여 완전하지 못한 점.
濫發 남발 •	•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올라고 다부짐.
缺點 결점 •	•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唐突 당돌 •	•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 또는 그 일.

※ 위 단어를 활용하여,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써 봅시다.





【꼭 알아 둡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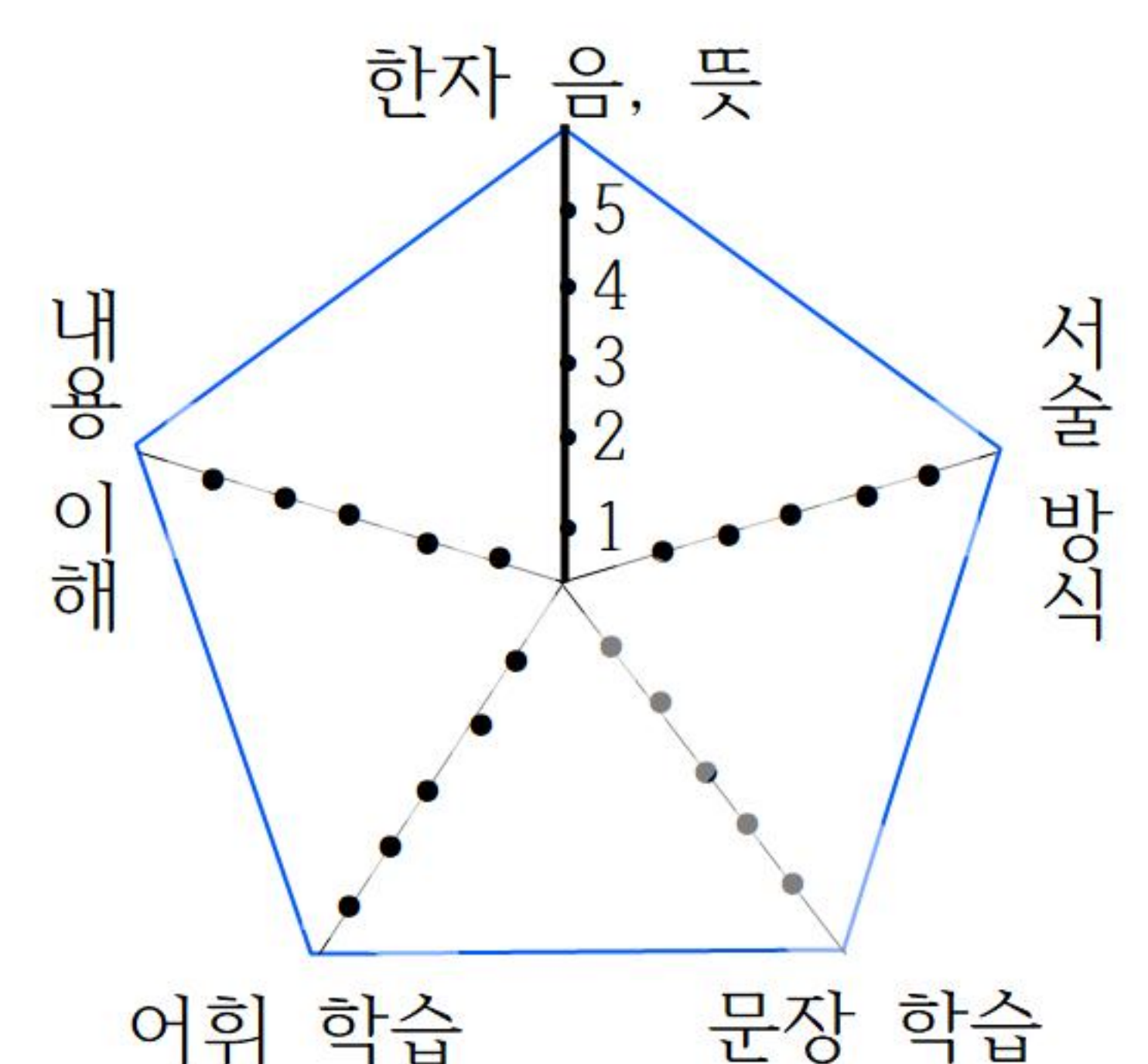
■ 인칭대명사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 汝: 너

■ 與猶堂全書(여유당전서)

조선후기의 문신,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저술을 정리한 문집. 활자본 154권 76책.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술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이른바 1표 2서(一表二書)에서 시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총망라한 문집이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4. 왕이 실록을 보려 하매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上 ¹ 曰 ² :太 ³ 宗 ⁴ 實 ⁵ 錄 ⁶ 을 春 ⁷ 秋 ⁸ 館 ⁹ 이 今 ¹⁰ 已 ¹¹ 畢 ¹³ 撰 ¹² 이라. 상 왕 태 종 실 록 춘 추 관 금 이 필 찬	曰 가로되 太 크다 宗 마루, 종묘 實 열매, 사실 錄 기록 春 봄 秋 가을 館 집 今 이제 已 이미 畢 마치다 撰 짓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上: 임금, 세종대왕太宗實錄: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 재위 18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春秋館: 조선 시대에 시정(時政)을 기록하던 관청 <p>▶ 임금이 말씀하시길: 태종실록을 춘추관에서 지금 이미 편찬을 마치었다.</p>	
문장	予欲見之 ^하 니 何如 ^{오?} 하니 여 욕 견 지 하 여	予 나 欲 하고자하다 見 보다 之 그, 그것 何 어찌 如 같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予: 나(1인칭 대명사)之: 그것(대명사)欲: ~하고자하다何如: 어떠한가? <p>▶</p>	
문장	右議政孟思誠과 提學尹淮와 同知摠制申檣等이 우 의 정 맹 사 성 제 학 윤 회 동 지 총 제 신 창 등	右 오른쪽 議 의논하다 政 정치 提 끝다 學 배우다 同 같다 知 알다 摠 모두 制 짓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右議政: 조선 시대 정일품(正一品) 관직提學: 조선 시대 종이품(從二品) 관직同知摠制: 조선 시대 군사 조직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관직 중 하나 <p>▶</p>	
문장	曰: 今所撰實錄은 皆載嘉言善政하여 왕 금 소 찬 실 록 개 재 가 언 선 정	今 지금 撰 짓다 皆 모두 載 신다 嘉 아름답다 言 말씀 善 착하다 政 정치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所 ~한 바. ~한 것.嘉言: 본받을 만한 좋은 말善政: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정사(政事) <p>▶</p>	

문장	無所更改 ^{이어늘} 況我殿下其有更改之乎 ^{잇가?} 무 소 경 개 황 아 전 하 기 유 경 개 지 호	無 없다 改 고치다 況 하물며 我 나 殿下 전각 下 아래 其 그 乎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況~乎: 하물며 ~이겠습니까? 更: (갱)다시, (경)바꾸다 殿下: 조선 시대 왕을 높여 부르던 말 更改: 바꾸어 고침 	
문장	殿下若見之 ^{하면} 則後世之主 ^도 必效而更改之 ^{하고} 전 하 약 견 지 즉 후 세 지 주 필 효 이 경 개 지	若 만약 見 보다 之 그것, ~의 則 ~면 世 대 主 주인, 임금 效 본받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若: 만약 見之: 그것을 보다 則: ~하면 곧 主: 임금 而: ~하고 	
문장	史官 ^도 亦疑君上之見 ^{하여} 必不盡記其事 ^{하리니} 사 관 역 의 군 상 지 견 필 부 진 기 기 사	史 역사 官 벼슬 亦 또 疑 의심하다 盡 다하다 記 기록하다 其 그 事 일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史官: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하던 관리 君上: 군왕, 임금 之: ~가/이 	
문장	何以傳信於將來 ^{잇가? 하니} 上曰: 然 ^{이라. 하다} 하 이 전 신 어 장 래 상 왈 연	何 어찌 以 ~로써 傳 전하다 於 어조사 將 장차 上 위, 임금 然 그러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何以: 무엇으로써, 어떻게 於: ~에게 將來: 앞으로, 후세 上: 임금 	

※ 역사 기록을 담당했던 사관들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기록의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該博 해박 •	•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음.
歌詞 가사 •	• 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 ‘유가 증권’을 이르는 말.
證券 증권 •	• 가곡, 가요, 오페라 따위로 불릴 것을 전제로 하여 쓰인 글.
簿記 부기 •	• 분명하고 자세함.
許諾 허락 •	•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
昭詳 소상 •	• 자산, 자본, 부채의 수지·증감 따위를 밝히는 기장법(記帳法).

〔나〕

宗中 종중 •	• 동북아시아를 줄여서 이르는 말.
中東 중동 •	•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東北亞 동북아 •	• 유럽의 관점에서 본 극동(極東)과 근동(近東)의 중간 지역.
亞鉛 아연 •	• 질(質)이 무르고 광택이 나는 청색을 띤 흰색의 금속 원소.
鉛筆 연필 •	• 필기도구의 하나.
筆談 필담 •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所懷 소회 •	•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懷柔 회유 •	•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글로 써서 서로 묻고 대답함.
柔軟 유연 •	• 부드럽고 연합.
軟鐵 연철 •	• 강철로 만든 관.
鐵鋼 철강 •	• 주철과 강철을 아울러 이르는 말.
鋼管 강관 •	• 탄소 함유량 0.01% 이하의 무른 철.
史草 사초 •	• 초록색.
草綠 초록 •	•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스산하다.
綠陰 녹음 •	•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 또는 그 나무의 그늘.
陰沈 음침 •	•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는 증상.
沈滯 침체 •	•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滯症 체증 •	• 조선 시대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둔 사기(史記)의 초고(草稿).

〔다〕

抄啓文臣制 초계문신제 •	• 양반과 상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班常 반상 •	•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음.
關係 관계 •	•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추천함.
薦舉 천거 •	• 조선 정조 때에 문인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제도.
賤出 천출 •	• 아주 많음.
庶子 서자 •	• 천첩에게서 난 자손. 천한 출신.
頗多 파다 •	• 양반과 양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 첩의 자식.
攝理 섭리 •	• 말이나 글이 많은 뜻을 담고 있음.
含蓄 함축 •	•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朝廷 조정 •	•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곳.
黨利黨略 당리당략 •	• 정당의 이익과 그 이익을 위한 정략, 계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
殉利 순리 •	•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祿賜 녹사 •	• 이익(利益)만 바라보고 몸을 망침.
罷職 파직 •	• 벼슬아치에게 내리던 녹봉과 물품.
追贈 추증 •	•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 주던 일.

【꼭 알아 둬시다】

■ 한문 지식 정리

- 문장의 유형
 -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실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예) 予欲見之하니 何如오?
- 산문의 서술방식
 - 의론적(議論的) 서술: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사상을 천명하는 글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편년체(연대순으로 기록한 역사 서술 방식)로 기록한 역사서를 말한다. 실록은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임금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여 묶어 놓은 책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 임금들은 나라를 세운 태조 임금부터 25대 철종 임금까지 각 임금마다 자기 이름을 붙인 실록이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조선의 역대 임금들의 실록을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25대 472년, 17만 2천여 일 동안 일어난 일을 소상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왕들의 실록을 모두 합하여 《조선왕조실록》이라 부르고 있다.

■ 史草(사초)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록 편찬의 자료를 가리키는 말로서, 8명의 사관이 교대로 궁중에 숙직하며 조정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정사의 잘잘못과 국왕의 언동, 인물의 선악 등을 기록한 것이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임금이 죽은 후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개별적으로 보관하였다. 사초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국왕을 포함한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새 국왕이 즉위하여 선왕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 춘추관에 모아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작업이 끝나면 실록 초고본과 함께 물에 풀어 기록을 없앴다(洗草).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